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美, 정책 금리 11번째 인상
- 북핵 리스크 해소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상향 가시화

## 경영 노트

- 톰 피터스의 '드림 비즈니스'

## 정치 현안

- 6자회담 체결로 북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발판 마련

## 저널 브리프

- 러시아, 석유 판매 수입의 향방

## 洗心錄

- 처칠의 유머

## □ 美, 정책금리 11번째 인상

- 美 연준(FRB)은 9월 20일 기준금리를 3.75%로 0.25%p 인상함
  - 美 연준(FRB)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0.25%의 금리인상을 단행함
  - 연준은 성명서에서 카트리나의 부정적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며 현재의 금리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임을 시사
  - 美 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최근 콜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는 한국은행도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짐
-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아져 가계 및 기업의 체감 경기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정부는 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와 고용 증대를 유도해야 할 것임

## □ 북핵 리스크 해소에 따르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가시화

-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英 피치(FITCH)社は 6자 회담 타결 직후인 지난 9월 20일 한국을 신용등급 상향 조정(A→A+)을 위한 ‘긍정적 관찰 대상’(rating watch positive)에 포함
  - 그동안 금융 및 기업 부문의 체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핵 리스크 등으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AA-)을 회복하지 못했음
  - 장기화 양상을 보이던 북핵 리스크가 일정 수준 해소된 만큼 향후 무디스(Moody's)등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짐
-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 여건(조달금리)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기업은 해외 자금 조달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톰 피터스의 “드림 비즈니스(Dream Business)”\*

- 드림 비즈니스는 ‘고객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비즈니스’를 가리킴
  -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독특하고 인상적인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함
  - 고객들은 자신들의 꿈을 간접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기 때문임
  - 페라리, 할리데이비슨,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 고객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고 있음
  
- ‘경험과 꿈’의 드림 비즈니스 요인들로는 디자인, 솔루션, 브랜드가 있음
  - (디자인) 고객들로 하여금 즐거운 상상과 놀라움,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창의적인 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함
  - (솔루션)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고객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솔루션의 개발임. 그 적용 범위는 일반 제조품에서 홈페이지, IT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함
  - (브랜드) 단순한 마케팅 기술이나 로고가 아닌 고객과의 약속에 대한 기업의 열정, 역사, 그리고 철학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브랜드를 설정
  
- (시사점) 드림 비즈니스는 신사업 개발 전략의 방향을 시사함
  - 정보통신의 발전은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기술 융합을 가능케 하여 기존의 경영 개선이나 물리적 설비투자에 의한 선점 효과로 얻는 기업들의 경쟁우위를 약화시킴으로써 신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음
  - 드림 비즈니스는 정보통신 산업 시대에 ‘환상적인 경험을 통한 고객들의 꿈의 실현’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이용한 신사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드림 비즈니스의 디자인, 솔루션, 브랜드는 모방이 어려운 반면에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등 다양한 사업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의 매력성이 크다고 판단됨

\* 톰 피터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초우량 기업의 조건」을 저술한 미국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로서 “드림 비즈니스”는 2005년 출간된 「미래를 경영하라!」에서 제시한 개념임

□ 6자회담 타결로 북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발판 마련

- (성과) 9.19 6자 회담 타결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공동성명 6개항의 주 내용은 ①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핵 계획을 폐기하고 NPT 및 IAEA 안전 조치에 복귀하는 대신, ②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대북 불침공, 경수로 문제 제공 문제의 논의를 약속하고, 北美 상호 주권 존중과 北美 및 北日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하며, ③ 에너지와 교역, 투자 부문의 경험 증진과 한국의 200만 kW 전력 공급 제안을 약속한다는 것임
  - 또한, ④ 동북아의 평화 안정은 물론,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협상하며, ⑤ ‘공약 對 공약’ ‘행동 對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합의 사항을 단계적으로 실천해가며 ⑥ 차기 회담은 11월 초에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효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군사적 효과 외에도 북핵 리스크 완화에 따르는 대외 신용도 제고로 남북경협 활성화 및 투자 증대 등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함
  - 그러나 북핵 문제는 해묵은 사안인 만큼, 국내 증시와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보다는 북한의 NPT 복귀 및 IAEA 사찰 수용 등의 실질적인 이행 단계에 따라 중장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 (전망과 과제) ‘행동 對 행동’ 원칙에 의한 실질적 합의 이행 여부가 관건으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유도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량 발휘가 매우 중요함
  - 北美 간의 근본적인 불신은 물론, 경수로 제공 시기와 북한의 NPT 복귀 및 IAEA 사찰 수용 시기의 先後를 둘러싼 北美 간 이견 노출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합의 도출은 5차 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경수로 건설 주체와 비용 분담, 사찰 수용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완전한 핵 폐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정부는 재원 확충 방안 마련과 함께 굳건한 韓美 공조 하에, 경수로 제공과 북한의 NPT 복귀의 동시 이행 등의 절충안 제시로 南北 당국간 회담과 韓中 고위급 접촉 등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 설득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러시아, 석유 판매 수입의 향방\*

- (석유 수입 급증의 영향)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산유국인 러시아는 세계 유가 급등에 따르는 판매 수입 급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위기에 대비한 ‘안정화 기금’ 또한 급증하고 있음
  - (호황) 증시 급등뿐 아니라, 지난 5년 간 부동산 가격이 3배나 급등하는 등 부동산 건축 붐 등 호황을 누리고 있음
  - (‘안정화 기금’ 급증) 한편 석유 판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적립함으로써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된 러시아 정부의 ‘안정화 기금’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음
    - 국내 총생산의 7%가 안정화 기금: 2005년 7월 1일 현재 러시아의 안정화 기금 규모는 210억 달러로 연말에는 러시아 국내총생산의 7% 규모에 맞먹는 5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 (석유 판매 수익 급증에 따르는 문제점) 급증하고 있는 ‘안정화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병’의 가시화, 부정부패 악화 등의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음
  - (안정화 기금 사용처에 관한 논쟁 심화) 빈민과 노인층을 위한 기금 조성, 인프라 건설, 미국의 스타워즈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 위성 감시체제 구축, 영구기금 창설을 통해 모든 러시아 국민에게 수입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서의 역할 고수 등 ‘안정화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 (네덜란드 병의 가시화) 한편 급격한 석유 수출 증가에 의한 러시아 통화의 과대평가와 그에 따르는 전통 제조업의 수출 감소 등 ‘네덜란드 병’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안정화 기금’의 폐해) 석유 판매 수익 증가에 반해 생산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화 기금’ 마련을 위한 세금 부담 가중으로 신규 유전 개발 투자가 지연되는 등 ‘안정화 기금’은 석유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음
  - (부정부패 악화) 국제투명성기구는 러시아의 부패 인식 지수를 2002년 71위에서 2004년 90위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실제로 급증하는 석유 수입을 각급 정부기관 관료들이 착복하는 등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있음

\* 이 글은 『뉴스위크(한국판)』 (2005.9.21, 28 통합본)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 처칠의 유머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폴 존슨은 ‘위대한 지도자의 다섯 가지 덕목’ 중 하나로 유머를 꼽는다. 도덕적 용기, 판단력, 우선 순위에 대한 감각, 힘의 배분과 함께 유머가 지도력의 핵심 요소라고 한다.

사실 최고 지도자들은 유머에도 달인인 경우가 많았다. 영국 수상을 지냈고, 1953년에는 ‘제2차 대전 회고록’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도 빠질 수 없는 인물 가운데 하나다.

한번은 영국의 세계적인 극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가 처칠에게 극장표 두 장을 보냈다.

“제 연극에 초대합니다. 혹시라도 동행하실 친구 분이 계시다면 함께 오십시오.” 처칠이 동행할 친구조차 하나 없는 외톨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처칠은 즉각 답신을 보냈다.

“첫날은 바쁜 사정으로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음 날에는 가지요. 연극이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으면 말입니다.”

하루는 정가에 그의 늦잠이 도마에 올랐다.

“영국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정치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적(政敵)은 점잖게, 그러나 차갑게 꼬집었다.

그냥 물러설 처칠이 아니었다.

"글쎄요, 당신도 나처럼 예쁜 부인과 함께 산다면 아침에 결코 일찍 일어나지 못할 거요." 재치 있는 반격에 정적은 본전도 찾지 못했다.

의회 사상 첫 여성위원이 된 애스터가 한번은 잔뜩 화가 나서 처칠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내가 만일 당신의 아내라면 서슴지 않고 당신의 커피에 독을 타겠소.”

처칠은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망연자실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당신의 남편이라면 서슴지 않고 그 커피를 마셔버리겠소.”

‘당신은 정말 매력없고 무례한 여자군요!’ 하는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받아칠 수 있는 것은 처칠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재치였다는 평가다.

처칠이 화장실에 갔다. 정적인 노동당 당수가 먼저 와 소변을 보고 있었다. 처칠은 그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기 앞에 섰다.

“내가 그리 무섭소?” 정적이 득의양양하게 물었다.

처칠이 대꾸했다.

“당신은 뭐든지 큰 것만 보면 국유화하려 들지 않소.”

정적인 폭소를 터뜨렸고 노동당은 결국 상정하려던 국유화 법안을 포기하고 말았다.

제2차 대전 초기, 처칠 수상이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의 일이다. 호텔 숙소에서 목욕을 한 뒤 수건만 두르고 있는 처칠 앞에 돌연 루즈벨트가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났다. 순간, 몸을 일으키던 처칠의 허리에서 갑자기 수건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정장의 루즈벨트와 알몸의 처칠. 참으로 기묘한 장면이었다. 그때 처칠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시다시피 영국 수상은 미국 대통령에게 전혀 감추는 게 없답니다.”

이 유머 한 마디로 두 사람은 흥금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이후에도 둘도 없는 친구로 남았다고 한다.

**유머 감각이 없다면 완전한 정신 세계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

**세네카(Seneca, BC 4~AD 65) : 로마의 정치가, 작가, 철학자**